

<서평>

*Studies in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Dominique Barthélemy, Winona Lake: Eisenbrauns, 2012)

곽은성*

1. 들어가는 말

장도미니크 바르텔레미(J.-D. Barthélemy)의 글을 엮은 본서 *Studies in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STOT)*는 히브리어/구약성경 본문 비평의 역사적 흐름과 이론적 기초를 낱줄과 씨줄처럼 촘촘히 직조해 낸 저작으로, 히브리어/구약성경 본문 비평의 학문적 지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이에 대해 토브(E. Tov)는 “히브리어 성경 본문 비평에 대한 거의 완전한 입문서”라고 평하기도 한다.¹⁾

그렇다면 본문 비평이란 과연 무엇인가? 본문 비평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본문의 사소한 글자 하나까지 비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방법론적 여정은 어떻게 신앙공동체의 고백과 맞닿는가? 본문 비평에 관해 흔히 제기되는 오해가 있다. 첫째, 본문 비평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인식이다. 둘째, 단순한 문자적 분석이나 학자들의 지적 유희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셋째, 본문 비평이 전통적으로 권위 있는 본문 형식을 경시한다는 주장이다. 넷째, 추정 교정(conjectural emendation)이 본문 비평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여기는 오해이다.

* University of Oxford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계명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조교수. unsungkwak@kmu.ac.kr.

1) E. Tov, “The Biblia Hebraica Quinta: An Important Step Forward”,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s* 31 (2005), 3, 각주 10.

그러나 본문 비평의 진정한 역할은 전승 역사의 참모습을 밝혀 성경 본문의 전통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본문 비평은 단지 텍스트의 오류를 수정하는 기술적 절차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 본문의 다층적 전승 역사를 치밀하게 복원하여, 본문에 담긴 본래의 울림과 메시지를 오늘날의 신앙과 학문적 담론 속으로 소환하는 문헌학적 숙련과 해석학적 예술이 결합한 작업이다. 그 궁극적 목표는 수많은 필사적 이형(variant)과 의도적 변형의 배후에서도 성경 본문이 전하려 했던 핵심 메시지를 선명히 드러내고, 독자들로 하여금 이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문 비평은 교정 원칙, 계통학적 분석, 고대 역본과의 비교 등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며, 이는 단순한 문헌학적 도구를 넘어서서 본문 형성 공동체의 신앙적 고민과 질문을 재현하는 충실한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바르텔레미의 *STOT*는 본문 비평의 목적과 방법론, 그리고 그 역사적 전개를 포괄적으로 조망한 저작으로서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 이 책은 본문 비평이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상세히 제시하며, 오늘날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해석하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길잡이가 되어 준다.

먼저 2장에서는 *STOT*의 탄생 배경과 구성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지는 3장부터 5장까지는 각기 *STOT*의 주요 내용을 따라가며, 본문 비평의 목적, 방법론, 사례 분석 등에 대해 정리하고 분석한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STOT*와 본문 비평과의 관계에 대한 의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마무리한다.²⁾

2. 히브리어 구약성경 본문 프로젝트 배경 및 책의 구성³⁾

2.1. 히브리어 구약성경 본문 프로젝트의 배경

히브리어 구약성경 본문 프로젝트(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2) 최근 한국어로 번역된 본문 비평에 관한 책과 그 서평은 다음을 참조하라. A. A. 피셔,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 비평: 에른스트 뷔르트바인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입문서에 대한 새로운 개정』, 김정훈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0); 김정훈, “<서평>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Neubearbeitung der Einführung in die Biblia Hebraica von Ernst Würthwein* (Alexander Achilles Fischer,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성경원문연구』 39 (2016), 448-464. 본문 비평에 관한 논문은 다음을 참조하라. 김창락, “성서 번역과 본문 비평”, 『성경원문연구』 11 (2002), 7-49; 김정훈, “구약성경의 본문 비평”, 『구약논단』 31 (2025), 281-322.

3) 2장은 *STOT*에 수록된 샌더스(J. A. Sanders)가 쓴 서론을 참고했다. J.-D. Barthélemy, *STOT*, xv-xxviii.

HOTTP)는 1946년 신약학자 나이다(E. A. Nida)가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UBS) 번역부장으로 취임하면서 구약과 신약 번역 모두에 가장 신뢰할 만한 본문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 데에서 출발한다. 신약 분과에서는 1955년 그리스어 신약 본문 프로젝트가 조직되어 1966년 GNT가 출간된다. 이후 구약 분과에서는 1969년 나이다의 주도로 여섯 명의 구약학자가 독일의 아르놀트샤인(Arnoldshain)에 모여 프로젝트에 대한 서로 간의 진지한 헌신을 확인한다.⁴⁾ 이때 그들은 사해 사본의 발견으로 구약 본문 비평에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인식하고, 본문 전승사의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병행 연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나이다 역시 이를 수용함으로써 HOTTP의 토대를 확립한다.⁵⁾

이 프로젝트에서 여섯 명의 구약학자는 성경 본문에 나타난 다양한 본문 문제 유형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면서 본문 비평 학문의 진정한 의미를 재조명할 기회를 얻는다. 프로젝트의 주요 과업은 성경 전반에서 균등하게 선별된 약 5,000여 개의 난해 본문 문제를 검토하며 각 이슈가 발생한 문맥과 전승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가톨릭 학자 두 명이 참여했지만, 연구 범위는 개신교 정경에 수록된 히브리어 구약성경으로 한정한다. 특히 바르텔레미의 연구는 ‘난해(unintelligible)’나 ‘오류(corrupt)’로 성급하게 결론지어진 본문들이 후대 번역본이나 단순 추측으로 인해 문제의 핵심이 흐려진 사례를 지적하는데, 이에 따라 위원회는 그간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히브리어 문법과 문체적 특성을 새롭게 탐색해 본래의 본문 문제를 보다 충실히 복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이슈가 있는 본문 중 상당수가 히브리어 문법과 통사구조의 복잡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발견한다.

HOTTP의 예비 보고서는 UBS에서 1973–1980년에 출간된 5권의 *Preliminary and Interim Report on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Compte rendu préliminaire et provisoire sur le travail d'analys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hébreu)*이다. 이 예비 보고서는 이후 최종 보고서(rapport final)로 이어지며, 최종 보고서에는 HOTTP가 사용한 개념과 방법론, 그리고 본문 비평의 최신 동향 및 사해 사본의 영향을 고려한 분석 방식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 결실이 바로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CTAT)*이며,

4) 6인의 구약학자는 프리부르(Fribourg)의 바르텔레미(J.-D. Barthélemy), 위트레흐트(Utrecht)의 홀스트(A. R. Hulst), 프랑크푸르트(Frankfurt)의 로핑크(N. Lohfink), 옥스포드(Oxford)의 맥하디(W. D. McHardy), 튀빙겐(Tübingen)의 뤼거(H. P. Rüger), 클레어몬트(Claremont)의 샌더스이다.

5) J.-D. Barthélemy, *STOT*, 145. 이 모임의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는, 성경의 보급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국제 조직의 목표가 학문적 연구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현재 본문 비평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가장 긴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총 4권이 출판되었다(1982-2005).⁶⁾

본서 *STOT*는 바로 *HOTTP*의 결과물인 *CTAT* 시리즈 중 1-3권의 서문만을 모아 엮은 책이다. 이 서문은 바르텔레미가 썼으며, 그의 평생을 걸쳐 축적한 연구의 결실과 같다.

*HOTTP*의 기대와 달리 *CTAT*는 학계에서 다소 외면받는데, 그 이유는 이슈가 있는 본문들 모두가 아닌 일부만을 다루었다는 점과 각 분석 서두에 현대 서구 번역본들을 제시하는 방식 때문이다. 그러나 *UBS*는 나이다를 통해 *HOTTP*에 명확한 두 가지 과제를 부여한다. 첫째는 20세기 중반 주요 서구 번역본들이 중요한 본문들에서 서로 다른 번역을 내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번역자들에게 본문 비평을 통해 신뢰할 만한 본문을 제시하는 것이며, 둘째는 사해 사본이 본문 비평 전반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다. 비판이 있긴 하지만, *CTAT*는 *HOTTP*의 연구 목표와 방법론을 충실히 반영한 기본 자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만하다.

*HOTTP*와 그 결과물인 *CTAT*가 비록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료일지라도, 본문 비평을 통해 성서 번역에 있어 신뢰할 만한 히브리어 구약성경 본문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집약된 책으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 특히 *HOTTP*는 현대 본문 비평의 방법론 형성과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현재 편집이 진행 중인 *BHQ*의 제작에도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다. 실제로 *BHQ*의 최초 출간분 18권 서론에서는 *BHQ*의 특징이 *BHK* 판본들의 역사와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히브리어 구약성경 본문 프로젝트(*HOTTP*)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⁷⁾

이처럼 *HOTTP*는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 역사와 목적을 아우르는 핵심 기반을 이루며, 그 성과를 집약한 결과물이 바로 바르텔레미의 *CTAT* 1-3권 서문을 모은 이 책, *STOT*이다. 이제 본서의 구성을 살펴보자.

6) 네 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Tome 1. Josué, Juges, Ruth, Samuel, Rois, Chroniques, Esdras, Néhémie, Esther* (1982).
2.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Tome 2. Isaïe, Jérémie, Lamentations* (1986).
3.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Tome 3. Ézéchiel, Daniel et les 12 Prophètes* (1992).
4.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Tome 4. Psaumes* (2005).

7) J. de Waard, et al. eds, *BHQ 18: General Introduction and Megilloth = Megilo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4), vii. 아울러 *BHQ*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은 (a)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사명과 관심사, (b) *UBS*의 주도로 기획되고 재정 지원된 *HOTTP*, 그리고 (c) *BHQ*의 의도된 독자층이다.

2.2. STOT의 구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TOT는 CTAT 1-3권의 서문을 엮은 책이며, 이 모든 서문은 바르텔레미가 직접 집필한 것이다.⁸⁾ 이에 따라 STOT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는 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STOT 1부는 CTAT 1권의 서문을, 2부는 2권의 서문을, 3부는 3권의 서문을 수록하고 있다.

STOT 1부는 CTAT 1권의 서문으로서, 본문 비평의 태동기부터 미카엘리스(J. D. Michaelis) 시대에 이르는 역사, 곧 근대 본문 비평의 형성기까지의 흐름을 조망한다. 또한, HOTTP가 어떠한 이론적 틀과 방법론을 토대로 작업을 수행했는지 상세히 다룬다. 특히 본문이 고대 공동체의 신앙적 자산으로 수용되는 지점, 즉 저자와 편집자의 손을 떠나 기능적으로 ‘정경화’되는 순간에 주목하면서, 이 전환점의 본문 복원이 본문 비평의 핵심 과제로 설정한다.

STOT 2부는 CTAT 2권의 서문을 수록하며, 먼저 팀의 작업 방식을 설명한다. 여기에는 본문 문제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비평 장치(apparatus)가 어떤 구조로 구성되었는지가 포함된다. 이어서 20세기 번역본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인용되었는지를 밝히는데, 이들 번역본은 전 세계 UBS 지역 번역 위원회들이 난해한 본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 참고한 주요 자료들이다. 이후에는 각 본문 문제 제시의 구성 원리,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수정이 형성되는 방식, 그리고 근대 본문 비평 이전과 이후의 본문 문제들이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루어졌는지 다룬다.

STOT 3부는 CTAT 3권의 서문이고, 이 부분은 가장 방대하면서도 정제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바르텔레미의 본문 비평 학자로서의 깊이와 폭넓은 통찰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는 ‘정경(canon)’이라는 개념을 기능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본문 비평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어 알레포 코덱스(Aleppo Codex)의 권위와 의미를 분석하고, 중세 후기 사본들의 한계, 티베리아 전통 이외의 본문 계통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본문 비평에서 마소라 주석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한다. 더불어, 사해 사본(Dead Sea Scrolls), LXX, 헥사플라(Hexapla), VUL, 페쉬타(Peshitta), TAR, 아랍어 역본(Arabic versions) 등 다양한 고대 번역본이 본문 비평에 기여하는 바를 검토한다. 이제 각 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8) 바르텔레미의 서문이 CTAT 1-3권에만 수록된 것은 그가 2002년 CTAT 4권이 완성되기 전에 별세했기 때문이다.

3. 1부

3.1. 1부 1장 — 구약성서 본문 비평의 역사: 기원에서 미카엘리스까지

CTAT 1부 1장은 구약성서 본문 비평의 기원으로부터 18세기 중엽 미카엘리스의 근대 비평적 접근까지 체계적으로 조망한다.⁹⁾ 바르텔레미는 구약성경 본문 비평이 독일 학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본문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비평적 노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특히 본문 비평이 BHS 이전부터 오랜 전통이 존재했음을 상기시키며, 19세기 독일 학계를 중심으로 여러 학자에 의해 주석서에서도 이미 텍스트의 교정과 수정이 자주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논의의 초석이 된 본문 비평의 초기 기원을 중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한다.

바르텔레미는 본문 비평의 초기 기원을 9-11세기 중세 유대교 내에서 이루어진 본문 교정 사례를 통해 살핀다. 9세기 중엽 유대인 학자인 이스마엘 알-욱바리(I. al-Ukbari)는 창세기 46:15의 필사 오류에 관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러한 비평적 태도가 이후 유대 문법학자들과 주석가들에 의해 발전되었다고 말한다. 익명의 문법학자가 11세기 초 스페인에서 활동하며 성경 본문의 약 100단어에 교정을 주장한 사례, 그리고 11세기 중엽 아불왈리드(Abulwalid)가 직접적인 본문 수정 대신 히브리어 문법 및 문체적 특징을 이용해 난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한 사례를 들기도 한다. 바르텔레미는 본문 교정에 대해 명시적인 교정을 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교정 효과를 내는 순열 및 치환 변형(exegesis by permutation or substitution) 기법이 중세 유대 주석에서 널리 쓰였음을 강조한다. 또한, 카라이트 계열(the Karaites)이자 랍비 주석가인 야페트 벤 알리(J. ben Ali), 아브라함 이븐 에즈라(A. Ibn Ezra), 아하론 벤 요세프(A. ben Joseph), 다윗 김히(D. Kimhi) 등의 연구가 성경 본문에 오류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형태론, 어휘론 및 통사론적 분석을 통해 난해 구절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로써 문법학과 사전학의 발전을 촉진했다는 평가를 덧붙이고 있다.¹⁰⁾

바르텔레미는 본문 비평의 근대적 접근이 16세기 루터(M. Luther)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이 방식이 오늘날까지도 상당 부분 계승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루터는 성서 번역 과정에서 본문 해석의 기준으로 신약

9) J.-D. Barthélemy, *STOT*, 2. 바르텔레미는 미카엘리스까지만 다루는 이유에 대해, 그 이후 본문 비평에 대한 관점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현대 본문 비평 입문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굳이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10) *Ibid.*, 2-6.

성경과의 신학적 정합성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적용하였고, 히브리어 본문이 유대 랍비들의 해석과 모음점(vowel pointing)에 의해 변질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특히 열왕기상 5:15의 텍스트에 대해 필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확신하며, 해당 구절의 원문 교정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본문 비평 접근의 필요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나아가 역대상 23:3에서 나타나는 수치적 불일치를 지적하며, 번역자와 편집자가 본문의 내적 및 외적 근거를 엄격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한다. 루터는 본문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원어의 문법 및 문맥적 분석과 신학적 검증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은 후대 본문 비평 연구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토대가 되었다. 바르텔레미는 루터의 연구가 단순한 번역 작업을 넘어 ‘성경 본문을 어떻게 비평적으로 다룰 것인가?’라는 질문을 학문적 의제로 제기함으로써, 근대 본문 비평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한다.¹¹⁾

바르텔레미는 17세기를 본문 비평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논쟁의 시기로 평가한다. 논쟁의 핵심은 히브리어 성경 본문의 모음 및 강세 부호가 과연 본래의 원본에 포함되어 있었는가, 아니면 후대에 인간의 손에 의해 첨가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카펠(L. Cappel)은 모음 및 강세 부호가 본문에 본래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문헌적 및 역사적 근거를 통해 논하고, 이는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 6세기 이후 첨가된 인간적 산물임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구약 본문에서 발견된 이형과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히브리어 성경 본문도 여타 고대 문헌과 같이 비평적으로 접근하여 수정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당시까지 통용되던 성경 본문의 절대적 보존성을 의심하는 혁신적인 주장이다. 이에 반해 북스토르프(J. Buxtorf)는 히브리어 본문의 모음 및 강세 부호가 이미 예루살렘 공동체의 시대부터 존재했으며, 이는 신의 섭리에 의해 보존된 본문의 일부라는 견해를 고수한다. 그의 아들 북스토르프 2세(J. Buxtorf II)는 카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를 본문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강력히 비판한다. 그는 이 부호들이 인간이 임의로 추가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지키기 위해 신적 영감을 통해 본문과 함께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한다.¹²⁾ 바르텔레미는 이 논쟁이 성경 본문에 대한 보수적 신앙과 비평적 접근 간의 근본적 갈등을 분명히 드러내며, 구약성경 본문 비평의 발전과 현대 본문 비평의 원칙 및 방법론 정립에 계기를 제공했

11) Ibid., 6-12.

12) Ibid., 21. 1675년 스위스 개혁교회는 신앙고백문을 발표하여 목회자가 히브리어 본문 전체(자음, 모음, 강세 부호 포함)를 신의 영감 아래 보존된 것으로 가르치도록 강제한다. 이는 카펠의 비평적 접근이 공식적으로 배격되는 역사적 사건이다.

다고 평가한다.¹³⁾

바르텔레미는 18세기를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사본 수집 및 대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한다. 이 시기의 대표적 인물인 우비강(C. F. Houbigant)은 히브리어 모음 부호를 후대의 인위적 첨가로 간주하고, 자음 본문에 기반한 본문 비평을 행한다. 그는 사마리아 오경(Samaritan Pentateuch), LXX, VUL 등 다양한 고대 번역본들과 다수의 히브리어 사본을 비교 분석하며, 단순한 필사 오류를 넘어서는 의미상의 이질적 흔적까지 추적한다. 특히 시편 22:16과 출애굽기 32:15와 같은 논쟁적인 본문에 대하여, 문맥과 섹어 어휘 및 문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개연성 있는 원문을 추정하는 방식인 추정 교정을 과감하게 도입한다. 우비강은 이처럼 사본 대조에 근거하여 본문을 세 계층으로 구분하는 비평적 장치를 도입하는데, 이는 곧 ‘중요 이형(significant variants)’, ‘부수적 이형(minor variants)’, ‘추정 교정’의 삼중 구조로 체계화한다. 바르텔레미는 우비강이 사본 연구와 추론적 해석을 통합한 선구적 작업을 통해, 근대 본문 비평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학문적 가교 구실을 한다고 평가한다.¹⁴⁾

영국의 케니콧(B. Kennicott)은 1760년부터 1769년까지 약 315명의 협력자를 동원해 옥스퍼드 대학교 및 대영박물관 등에 소장된 히브리어 원고 253권(사마리아어 8권 포함)과 초기 인쇄본 12종에서 150만 건에 달하는 본문 이형을 수집 및 편집한다. 이 방대한 대조는 당시 히브리어 본문 전통이 거의 단일 계통임을 확인하고, 이형이 대부분 오자 및 탈자 수준에 머물러 마소라 전승의 견고함을 드러낸다. 이탈리아 파르마의 데 로시(G. B. de Rossi) 역시 1784년부터 1788년까지 로마, 파르마, 토리노 등지에서 사본 1,418점과 인쇄본 375종을 조사하지만, 주요 이형 대부분은 여전히 철자나 자음 표기의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바르텔레미는 이 두 학자의 연구가 대규모 사본 비교는 자필 원본(autograph)의 복원이라는 본문 비평의 궁극적 과제에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지만, 히브리어 성경 사본 전승의 정형성과 안정성을 통계적으로 정량화하고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본문 비평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업적으로 평가한다.¹⁵⁾

바르텔레미는 스피노자(B. Spinoza)를 언급하며 본문 비평의 역사를 마무리한다. 스피노자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성경이 모두 후대의 필사본에 불과하며, 원본에 집착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본문 연구의 출발점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밝히는 전승사에 두어야 한

13) Ibid., 13-29.

14) Ibid., 31-33.

15) Ibid., 36-50.

다고 주장한다. 이에 시몽(R. Simon)은 스피노자의 비평을 수용하면서도, 성경 본문의 역사적 형성과 영적 의미가 공존함을 강조하며 본문 비평을 신앙과 조화시키는 해석학을 제안한다. 이들의 논쟁은 곧 미카엘리스, 아이호른(J. G. Eichhorn), 벨하우젠(J. Wellhausen) 등 독일 학자들에게 계승되어 다양한 비평 방법이 출현하는 토양이 된다.¹⁶⁾

바르텔레미는 본문 비평이 단순한 연대기적 발전이 아니라, 학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형성된 지적 유산임을 강조한다. 그는 중세 유대교의 교정 시도에서 출발하여, 루터의 신약과의 신학적 정합성 강조, 카펠과 북스트르프 사이의 모음 부호 논쟁, 그리고 스피노자의 전승사 연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질문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로 수렴한다고 평한다. 각 논쟁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이전 논의에 대한 비판과 수용을 통해 새로운 방법론이 형성되는 ‘연속적 대화’로 재구성된다. 바르텔레미는 이러한 ‘비평적 대화의 틀’이 미카엘리스의 시점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본다. 이후에도 유사한 주제가 반복되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본문 비평의 주요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논의의 방향성이 확립되기 때문이다. 20세기 사해 사본 발견과 마소라 전승의 재조명도 이러한 연속선상에 놓인다. 바르텔레미는 역사 속 주요 논쟁을 하나의 연결된 흐름으로 복원함으로써, 오늘의 연구자들도 이 거대한 대화의 장에 참여하여 새로운 비평적 질문을 던지도록 이끈다.

3.2. HOTTP 위원회와 히브리어 본문 비평의 과제

CTAT1부 2장은 히브리어 구약 본문 분석 위원회의 설립 배경과 본문 비평의 목표 및 정경 개념, 본문 비평의 방법론을 심도 있게 고찰한다. 바르텔레미는 먼저 본문 비평이 본래부터 체계적인 국제 협력 체계가 있어야 했으며, 1756년 괴팅겐의 미카엘리스가 협력체 설립을 제안했으나 7년 전쟁으로 무산된 역사를 짚는다. 이후 케니콧과 데 로시의 이본 대조 작업이 임시적 공백을 일부 메웠으나, 20세기 초 폴츠(P. Volz)와 뉘베리(H. S. Nyberg)는 이러한 협력 체계가 여전히 분산되어 있고, 피상적이라 비판하며 교과를 초월하는 국제적 위원회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특히 사해 사본의 발견은 본문 비평 방법론을 재정립하고 심층 연구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 같은 역사적 및 학문적 배경 속에서 HOTTP는 최초의 체계적 및 지속적 본문 비평 위원회 활동을 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현대 본문 비평의 토대를 마련한다.¹⁷⁾

16) Ibid., 51-81.

바르텔레미는 위원회가 활동 초기부터 본문 비평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본문 비평이 단순한 필사 오류 수정이나 문장 선택의 기술적 작업을 넘어, 성경 본문의 형성과 수용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벨하우젠이 제안한 ‘이상적 원본문(Urschrift)’의 복원이라는 고전적 이상과, 뉘베리(G. Nyberg)가 주장한 ‘정경화된 본문’ 중심 접근이라는 상반된 목표 개념 사이에서 중도적 입장을 취한 키텔(R. Kittel)의 견해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키텔은 본래 저자가 기록했던 최초의 문서를 이론적 이상으로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는 기원전 약 300년경 유대 공동체 내에서 사용된 표준 본문 형태라고 본다. 이 접근은 단일한 이상형보다는 전승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작동했던 본문을 중시하는 실증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본문 형성의 역사를 다음의 네 단계로 체계화한다.

- 1단계: 원저자들이 처음으로 기록한 문학적 산물(원본문, Urschrift)
- 2단계: 현존하는 가장 이른 본문 증거(earliest attested text)
- 3단계: 기원후 70년경, 성전 파괴 전후로 확립된 원마소라 본문(proto-Masoretic text)
- 4단계: 9-10세기 티베리아 마소라 학파에 의해 정경화된 마소라 본문(Tiberian Masoretic Text)

위원회는 이 중 2단계, 즉 현존하고 문헌적으로 입증 가능한 가장 이른 본문이 본문 비평의 실질적 목표로 설정한다. 이 시점은 다양한 본문 전통이 분기되기 이전, 다시 말해 특정 본문이 공동체 안에서 문학적 수정을 중단하고 규범적 권위를 획득하게 되는 정경화(canonization)의 결정적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정경’이란 단지 문헌 목록의 고정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본문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 및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아 더 이상의 문학적 발전이 중단되고, 규범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정경을 본문 외부의 목록 설정이 아닌, 본문 내부의 기능적 및 수용적 전환으로 이해하는 위원회의 정교한 정경 개념을 나타낸다.

위원회가 2단계를 본문 비평의 목표로 삼은 이유는, 문학적 기원으로서의 원형 복원보다는, 실제 공동체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사용된 본문의 역사성과 권위를 더 중요하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은 본문 비평이 고립된 학문이 아니라, 신앙공동체의 실천과 전승에 깊이 연결된 신학

17) Ibid., 82-84.

적 과제를 인식한 결과이며, 본문 비평의 방향을 ‘이상적 원본 탐색’에서 ‘역사적 수용의 맥락 회복’으로 전환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바르텔레미는 위원회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 본문 비평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서술한다. 먼저 UBS 사무국은 구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50개의 난제를 선정하고, 현대 번역본들이 마소라 본문과 의미상 불일치하는 지점을 식별하도록 한다. 본회의 이전 단계에서는 관련 이본들을 수집 및 대조하고, 주요 비평적 판단과 해석 전통을 역사적 맥락 안에서 검토한다. 본회의에서는 학자들이 대표 본문 사례를 중심으로 1차 판독 안을 제시하고, A-D 등급 투표를 통해 해당 판독의 보존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에는 번역자들이 이 본문 형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개연성 높은 해석을 제안함으로써, 번역 지원을 위한 본문 비평 자료를 일관되게 수집, 분석 및 제공한다.

위원회는 본문 비평의 판단 기준으로 ‘예비 및 중간 보고서’에 다양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 중 대표적인 세 가지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이형이 오직 하나의 전승에서만 나타날 경우, 그 독립성이 약하다고 보아 원형일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이는 단순한 증거 수의 문제가 아니라, 각 전승 간의 독립성과 상관관계를 따지는 방식이다. 둘째, 동일한 이형이 여러 전승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동일한 해석 경향에서 비롯된 ‘가시적 증거(apparent witnesses)’일 수 있기에, 이들이 실제로 독립적인지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이형들이 하나의 ‘핵심 본문 형태(core text form)’에서 파생된 양상을 보일 경우, 그 핵심 형태를 원형으로 간주하고, 다른 변형들이 그로부터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비평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본문 단순화, 평행 본문 동화, 번역 및 해석적 조정, 필사 오류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이형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위원회는 또한 추정 교정을 엄격히 제한한다. 현대 번역본 중에는 마소라 본문의 난해함을 추정적 교정으로 해결한 사례도 많았으나, 위원회는 자신들의 권한이 고대 사본 및 번역본에 실재하는 텍스트 문제 분석에 한정된다는 태도를 견지하여 순전히 추정에 기초한 교정안은 배제한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8:19의 **א**가 명백히 잘못 전사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증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원형으로 추정되는 **א** 형태는 각주에서만 언급한다. 이는 오직 증거로 입증된 본문만을 최종적 형태로 인정하겠다는 원칙 때문이다.¹⁸⁾

바르텔레미는 위원회의 방법론을 서술한 뒤, 히브리어 구약 본문 비평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 목적들을 제시한다. 히브리어 성경 본문 분석의 궁극

18) J.-D. Barthélemy, *STOT*, 84-136.

적 목적은, 성서 전승의 다양성과 본문 변형의 흐름 속에서 원래의 진정한 본문 형태를 가능한 한 충실하게 복원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역사 및 문헌학적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여, 오늘날의 독자와 연구자에게 명료하게 전달하는 데 있다.

본문 비평은 단순히 하나의 ‘정본’을 확정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으며, 목적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접근을 요구한다. 학술적 비평본 제작을 위해서는 레닌그라드 사본을 기준으로 삼되, 모든 관련 사본과 마소라 자료를 비판적 주석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본문 이형의 성격과 기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위원회는 티베리아 본문 전통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며, 이형의 기원과 편집적 의도를 신중히 분석한다.

또한 본문 비평은 번역 실천을 위한 실용적 지침 제공 역시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학술적 주석 번역에서는 문자적 충실성을 유지하면서도, LXX, TAR, 시리아역 등 고대 번역 전통의 해석과 이형을 충분히 반영하여 독자의 깊은 이해를 돕는다. 주석서의 경우, 본문 복원에만 머물지 않고, 본문의 형성과 수용 과정을 다층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자음 본문, 모음 및 강세 부호, 케레(Qerê)/케티브(Ketib) 전통, TAR과 같은 번역 증거, 그리고 유대 및 기독교 해석 전통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본문이 지닌 문헌적 깊이와 신학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요구된다.

바르텔레미에 따르면, 위원회는 초기에는 제2단계, 곧 현존하는 가장 이른 본문의 확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의 연구를 거치면서, 본문 비평은 다음 세 가지 상호 보완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학문적 깊이와 신앙적 유익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첫째, 고전 티베리아 본문을 최대한 정밀하게 확립하는 일, 둘째, 번역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침을 제시하는 일, 셋째, 역사 및 신학적 주석을 한층 심화하는 일이다. 바르텔레미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히브리어 성서 본문 비평의 학술적 정당성과 공동체적 유익을 회복하고 더욱 심화시키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한다.¹⁹⁾

4. 2부

4.1. 2부 1장 — CTAT에서 참고한 번역본들의 본문 선택에 대한 비평

2부 1장은 단순한 성경 번역사 연구를 넘어, 구약성경 본문 비평이 실제

19) Ibid., 137-143.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동시에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천을 반추하는 보고서이다. 먼저 HOTTP의 목적과 연구 과정을 밝히고, 다섯 가지 주요 성경 번역본(RSV, FBJ, LB[1967], NEB[1970], TOB)에 대한 위원회의 비평과 의의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바르텔레미는 HOTTP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 세계 성서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원본의 정확한 본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힌다. 이는 특히 현대의 번역본들(RSV, FBJ, LB[1967], NEB[1970], TOB)이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의 특정 지점에서 발생한 오류를 각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된 주요 번역본에서 도출된 대표적인 본문 문제 5,000건이 선정되어 위원회 논의의 출발점으로 제시되었고, 이들 사례는 본문 비평 그 자체에 대한 비평 작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바르텔레미는 이러한 시도가 이미 18세기 미카엘리스에 의해 선구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고 평가한다. 미카엘리스는 1769년 욥기 번역 서문에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독자들을 위해 전통적인 모음 표기를 수정하거나 명백한 오류를 교정했음을 밝히고, 모든 수정 사항을 각주에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한다. 그의 이러한 작업 방식은 이후 문자적 번역과 본문 차이를 각주로 명시하는 20세기 후반의 성경 번역자들에게 중요한 전례를 제공한다. 이어서 위원회가 평가한 다섯 개의 번역본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4.1.1. RSV

RSV는 KJV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 본문 비평의 성과를 반영하고자 한 20세기 중반의 대표적 영어 번역본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번역본이 본문 선택과 해석 방식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중 첫 번째 문제는 고대 역본, 특히 VUL을 근거로 한 본문 삽입이 각주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RSV는 히브리어 본문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을 삽입하면서도 이를 시각적으로 구별하거나 주석으로 알리지 않아, 독자에게 본문과 편집자 해석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두 번째 문제는 마소라 모음 부호에 대한 취급 방식이다. RSV는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기준으로 삼되, 모음 부호는 후대의 산물로 간주하여 필요시 자유롭게 교체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모음 전통도 오랜 구전 전승의 결과이며, 무시할 수 없는 해석의 기준이라고 지적한다. 모음 체계의 유동성을 인정하되, 자의적 수정을 반복하는 방식은 본문 전통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한다.

세 번째로, RSV는 마소라 본문과 다른 독법을 취할 때 종종 마소라 본문 번역을 각주에 제시하였으나, 이 번역들이 과장되거나 선택적으로 왜곡된 경우가 많다. 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이 독자에게 객관적인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RSV가 선택한 독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결국 본문에 대한 신뢰보다 현대 주석 전통에 의존하게 만들며, 해석과 번역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RSV가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본문 구성과 해석에 있어 투명성과 전승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결론을 맺는다. 하지만 RSV는 본문 비평에 대한 비평(critique of textual criticism)의 대표적 사례이며, 성경 번역의 기준과 방향을 다시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전례가 된다.

4.1.2. FBJ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어권에서는 기존의 LSG와 크랑퐁(A. Crampon)역을 넘어서 다양한 성경 번역이 급속히 증가한다. 이는 프랑스 문학이 종교 개혁의 영향을 덜 받았다는 문화적 배경, 교황 비오 12세의 회칙 ‘성령의 감동에 따라(Divino afflante Spiritu)’에 따른 성경 회복 운동, 그리고 프랑스 도미니코회가 설립한 에콜 비블리크(École Biblique)의 학문적 영향력 등의 세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번역본이 바로 예루살렘 성경이다.

FBJ는 도미니코회 소속의 시플로(T. G. Chifflet)가 주도하고, 예루살렘 에콜 비블리크의 드 보(R. de Vaux)와 협력하여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총 43권의 분책으로 출간된 후, 1956년과 1973년에 각각 단권으로 편집된다. 이 작업에는 총 33명의 번역자와 주해자, 그리고 프랑스어 문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각 분책은 번역자 1인과 주해 및 언어 검토자 2인으로 구성된 팀에 의해 제작된다. 주석에는 본문 비평 관련 논의도 포함되어, 전문 독자뿐 아니라 비전문 독자들에게도 성경 해석의 최신 성과를 제공한다.

FBJ는 본문 비평적 접근에 있어서 RSV와 유사하게 키텔의 BHK 2판과 3판, 그리고 Bible du Centenaire의 비평 장치에 기초한다. 1956년판은 비평 작업을 거쳐 확정된 원문에 기반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1973년판은 마소라 본문을 기본으로 삼되, 해석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고대 역본(그리스어, 시리아어, 라틴어 등)을 참조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FBJ가 본문 선택에서 비교적 신중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취했음을 나타낸다.

한편, FBJ는 판을 거듭하면서 본문 비평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초기

판본은 과감한 본문 수정을 시도했으나, 후기 판으로 갈수록 마소라 본문의 의미를 존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전반적으로 FBJ는 고대 역본이나 추정보다 마소라 본문을 더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본문 전통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확립한다. FBJ는 프랑스어권 성경 번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이후 여러 언어로의 번역에도 영향을 주며 국제적 성과를 거둔다.

4.1.3. LB(1967)

19세기 중반, 루터 성경은 12종 이상의 판본으로 출간되나, 원문 충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미카엘리스의 번역과 같은 현대 번역들은 기존 루터 성경의 고어와 해석상의 한계를 점점 더 분명히 드러낸다. 16세기 이후 변화된 독일어 환경 속에서 루터 성경의 일부 표현은 동화적 느낌을 줄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교리 교육(catechesis)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빈트자일(H. E. Bindseil)은 루터 번역의 체계적인 비평본을 편집하여 칸슈타인 성서협회(Cansteinsche Bibelanstalt)에 제출하고, 1857년 독일 복음주의 교회대회(Kirchentag)는 공식 개정을 결정한다. 1871-1881년 사이 구약성경이 개정되고, 1892년에는 칸슈타인 성서협회에서 공식 판본이 출간되나, 여전히 고어 표현과 비표준 철자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따라 1912년판이 새로 출간되고, 이는 1955년까지 루터교회의 표준으로 사용된다. 이후 현대어 감각과 원문 충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1920년대부터 새로운 개정이 추진되며, 1964년 교회평의회와 성서협회가 이를 승인하고, 1967년 LB가 정식 출판된다.

LB의 특징 중 하나는 본문 비평 각주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의 차이가 발생해도, 해당 독법이 루터의 원 번역에서 비롯된 것인지, 후대 개정의 결과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LB의 본문 선택을 분석하려면 여전히 1545년까지의 루터 성경 판본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ZB는 LB보다 더 급진적인 개정을 시도하였지만, LB는 보다 보수적인 태도 속에서 루터 번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가능한 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4.1.4. NEB(1970)

NEB는 1946년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서 헨드리(G. S. Hendry)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KJV의 언어가 시대에 맞지 않으며 현대 독자에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현대 영어 번역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이에 따라 영국 주요 교단들이 협력하여, 기존 번역을 개정하는 대신 새로운 번역을 제작하기로 합의한다. 번역자에게는 전통적인 ‘성경 영어’가 아닌 현대 영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번역 작업은 구약, 외경, 신약 각 위원회와 문학 자문 패널이 분담하며, 각 책은 한 명의 초안자가 작성한 후 패널의 토론과 수정을 거쳐 최종본이 확정된다. NEB 구약은 BHK 3판을 기본으로 사용하지만, 필사 전송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자음 오류는 고대 역본이나 학자들의 추정에 따라 수정한다. 모음 표기는 자유롭게 조정하고, 대부분의 수정은 각주로 설명한다. NEB는 본문 비평의 수용과 보고에서 높은 투명성을 추구한다. 특히 시가서에서는 히브리어 운율 구조를 반영해 구절의 순서를 재배열하거나 생략하는 등 과감한 편집을 감행한다.

이러한 해석적 자유는 전통적인 성경 독자들에게는 낯설 수 있었으며, 이후 개정판인 Revised English Bible(REB, 1989)은 보다 보수적인 방향으로 조정된다. NEB는 본문 비평, 문학성, 현대 언어 감각을 종합한 시도로, 20세기 중반 영국 개신교 성경 번역의 전환점을 이룬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4.1.5. TOB

TOB는 예루살렘 성경 개정 작업이 한창이던 1962년, 가톨릭 출판사인 Éditions du Cerf가 개신교 학자들에게 협업을 제안하면서 시작된다. 기존에 실패로 돌아갔던 교파 간 공동 번역 시도와 달리, 1960년대에는 성서학의 진전, 학문 공동체의 확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의 에큐메니컬 권장, 그리고 연합성서공회의 적극적 참여 등이 맞물리며 실제 협력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TOB는 프랑스어권 최초의 본격적인 에큐메니컬 번역 프로젝트로 자리 잡는다.

번역은 가톨릭과 개신교 번역자 각 1인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이들은 번역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관된 용어 사용과 표현을 정리한다. 최종본은 정교회 학자들, 문학 비평가, 외부 자문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완성되고, 번역자 개인의 이름은 명시하지 않고 전체 공동체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출판된다. 로마서(1967)를 시작으로, 신약(1973), 구약(1975), 간략 주석이 포함된 단권판(1977), 지도와 서문이 추가된 1982년판이 순차적으로 출간된다.

TOB는 마소라 본문을 기본으로 삼되, 사해 사본, LXX, 사마리아 오경 등의 고대 역본이 제시하는 주요 이문을 주석에서 소개한다. 그러나 마소라 본문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제한적이었으며, 이는 학문적 판단뿐 아니라 유대교 전통에 대한 존중과 공동 번역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편집 서

문은 본문 비평의 과제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무분별한 본문 수정보다는 전승된 본문을 해석 중심으로 다루겠다는 원칙을 가진다.

특히 TOB는 20세기 중반 프랑스어권 성서학계에서 나타난 두 흐름인 과도한 수정 제안에 대한 신중함과 중세 유대교 주석에 관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한다. 번역자들에게는 자율성이 주어졌지만, 전반적으로 TOB는 보수적인 본문 비평 입장을 견지한다. TOB는 교과 간 협력 번역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 준 동시에, 본문 비평에 있어서 신중함과 학문적 절제를 결합한 사례로 평가된다.

4.1.6. 본문 비평에 대한 비평과 의의

1945년부터 1975년까지는 구약 본문 비평이 본격적으로 번역 작업에 반영된 시기로 평가된다. 이 시기 출간된 다섯 개 번역본(RSV, FBJ[1954], LB[1967], NEB[1970], TOB[1975])은 각기 다른 언어권에서 본문 비평의 성과를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했는지를 잘 나타낸다. 이들 모두 마소라 본문을 기본으로 삼되, 해석상 난제가 발생하면 고대 역본을 참고하거나 추정 교정을 제안한다. 이러한 접근은 본문에 대한 전통적 존중과 학문적 분석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 결과였다.

CTAT 위원회는 각 번역본에서 약 5,000개의 본문 결정 사례를 선별하여 네 단계 — (1) 번역 결정 검토, (2) 역사적 맥락 탐색, (3) 본문 증인의 비교, (4) 해석 문제의 해결 방식 분석 — 를 통해 비평적 분석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단순히 본문 선택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본문 비평 그 자체에 대한 메타비평적 성찰을 시도한 것이다.

이 연구는 단지 번역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문 비평이 실제 번역에 어떻게 실천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분석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각 번역본은 자신이 속한 학문 전통과 해석적 지향을 반영하며, 본문 선택에 있어 보수적이거나 대담한 태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비교는 본문 비평이 단일한 체계라기보다는 다양한 신학적, 문체적, 학문적 선택의 복합체임을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CTAT 보고서는 본문 비평에 대한 ‘비평’으로서, 향후 연구자들이 더욱 심층적으로 구약 본문 전통을 탐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단지 5,000개의 사례 분석에 그치지 않고, 본문 비평의 목적과 한계, 그리고 그 실천적 적용 방식에 대해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²⁰⁾

20) Ibid., 144-159.

4.2. 2부 2장 — CTA7에서 참고한 번역본들의 본문 선택에 대한 비평

2부 2장에서 바르텔레미는 2부 1장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주요 번역본에 나타나는 교정(corrections)이 과연 본문 비평 관점에서의 판단인지, 아니면 번역자 혹은 개정자가 계승한 초기 비평적 전통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한다. 이러한 교정의 계보를 추적함으로써, 원전에 대한 충실성과 기존 전통의 권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 협상임을 드러낸다. 바르텔레미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대상은 LB(1967)이다. LB는 독일 고급 문화의 언어 표준을 형성하며 막대한 권위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개정자들은 “원본(Urtext)의 규범성”을 원칙으로 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루터가 남긴 번역 결정을 고스란히 보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관성은 18-19세기 독일 본문 비평가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이들 학자는 난해한 히브리어 구절을 직접 교정하기보다 루터 번역을 정당화할 근거를 고대 역본에서 찾으려 한다. 결과적으로 루터의 초기 비평적 선택이 오히려 후대 학문적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바르텔레미는 루터가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번역에 임했다고 말하며, 루터가 실제 번역 과정에서 구축한 다층적 의존 구조를 서지학적으로 복원한다. 핵심적인 자료는 1494년 브레시아에서 손치노(G. Soncino)가 간행한 소형 히브리어 성경이며, 이에 더해 다 프라토(F. da Prato)가 1516-1517년에 봄베르크(D. Bomberg)의 인쇄소에서 발행한 4권짜리 랍비 성경(Rabbinic Bible)을 적극적으로 참조한다. 봄베르크 판본은 키퍼의 주석을 포함하고 있어 루터에게 결정적 안내서를 제공한다. 이사야 번역과 관련해서는 폴츠의 연구처럼 루터가 외콜람파디우스(J. Ecolampadius)의 해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흔적이 확인된다. 루터는 또한 1466년부터 보급된 독일어 불가타와 파니니(S. Pagnini)가 1527년 리옹에서 출판한 라틴어 성경을 번갈아 비교하면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라틴어 번역본들이 수행한 중개 역할도 중요한 분석 축을 이룬다. 파니니, 뮌스터(S. Münster), 스테파누스(R. Stephanus), 트레멜리우스(I. Tremellius) 등의 라틴어 번역본은 16세기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틴어는 원어 성경과 각국어 번역 사이에 자리하면서,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전문 지식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본문 비평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 언어가 된다. 바르텔레미는 이 구조를 현대 번역 위원회가 영어 RSV나 프랑스어 TOB를 작업 언어로 활용하는 관행에 빗대어 설명하며, 매개 언어가 지닌 지속적인 영향력을 강조한다. 또한 본문 교정이

종교 및 정치 권력과 밀접히 얽혀 있다는 점도 바르텔레미의 논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²¹⁾

바르텔레미가 다섯 가지 주요 번역본을 비교하고, 루터 번역을 비평하며 내린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전통적인 번역본에서 이루어진 ‘교정’은 단순히 히브리어 원전을 더 정확하게 복원하려는 시도만이 아니다. 실제로는 이미 자리 잡은 성경 전통의 권위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그것을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일종의 문화적 협상 과정이다. 다시 말해, 번역자나 개정자는 원전만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속한 신앙공동체나 교회 전통에서 인정받은 성경의 권위를 함께 고려하며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런 문화적 협상은 한 언어권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독일어 성경의 개정은 라틴어 번역본의 영향을 받았고, KJV도 이전 유럽 번역 전통과 긴밀히 연결돼 있었다. 번역자들은 서로의 결과물을 참고하거나 모방했고, 라틴어라는 매개를 통해 각 언어권의 전통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즉, 교정의 흐름은 국경과 언어를 넘어 이어지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셋째, 이런 사실은 현대 본문 비평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과거에는 흔히 ‘원전과 번역’을 완전히 분리해 생각했지만, 바르텔레미는 그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번역은 단순히 원전을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전통과 권위가 뒤섞인 복합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본문 비평은 원전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번역과 개정을 통해 형성된 전체 유산을 하나의 연구 단위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성경 본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였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5. 3부

2부가 현대 역본들에 대한 비평과, 그들이 채택한 본문 결정의 근거를 분석하는 배경 논의에 집중했다면, *CTAT* 3부는 본문 비평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이론적 쟁점들을 서론에서 제시한 뒤, 고대 본문 증거를 총체적으로 다룬다. 3부의 전체 구성은 서론, 1장, 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5.1. 서론

CTAT 3부 서론은 기존 본문 비평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한다.

21) *Ibid.*, 160-227.

이 서론은 단순히 ‘정본(reliable text)’을 확보하는 기술적 작업을 넘어서, 본문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문학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며, 편집적으로 어떻게 개입되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추적한다. 다시 말해, ‘좋은 본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본문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비평본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3부 서론은 본문 비평의 목표, 본문 유형에 대한 이해, 비평본 구성 방식, 그리고 비평 장치(apparatus)의 체계적 설계 원리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바르텔레미가 논의하는 가장 먼저 제시되는 핵심 개념은 ‘정경적 성서(canonical scripture)’와 ‘거룩한 성서(holy scripture)’의 구분이다. 이 두 용어는 통상적으로 혼용되지만, 사실상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와 전승 조건을 반영한다. ‘거룩한 성서’는 특정 신앙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되어, 세대 간 예배와 교훈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해석된 본문을 가리킨다. 이러한 본문은 누락, 첨가, 수정 등의 변형이 가능하며, 공동체의 신앙 실천을 위한 문학 및 의례적 실용성을 중심으로 기능한다. 반면, ‘정경적 성서’는 제도화된 종교 권위에 의해 규범적 지위를 부여받은 문헌을 뜻한다. 이 경우 본문은 문헌학적으로 안정화되어야 하며, 복제와 유통에 있어 표준 역할을 기능하는 고정된 형태의 문헌이다.²²⁾

바르텔레미는 히브리어 성경 본문의 안정화 과정을 자음 본문의 표준화(consonantal stabilization)와 마소라 전통의 문자화 과정을 통해 설명한다. 그는 이 두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비평본 편찬의 출발점이자 핵심 기초라고 본다. 본문 안정화의 핵심은 자음 본문, 모음 부호, 강제 표기, 마소라 주석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이룬 데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티베리아 모음 체계이다. 바르텔레미에 따르면, 이 체계는 케레를 가능한 한 정확하고 완전하게 재현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라고 평가한다. 바르텔레미는 이 전통의 결정체로 벤 아셰르(Ben Asher) 가문, 특히 아론 벤 아셰르(A. ben Asher)가 편찬한 코텍스에 주목한다. 다섯 세대에 걸쳐 히브리어 성경의 자음, 모음, 강제 및 마소라를 완전히 통합해 정리한 이 가문의 노력은 아론 벤 아셰르의 필사본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 코텍스는 마소라 본문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규범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이모니데스(Maimonides)의 권위를 통해 유대교 전통에서 ‘완전한 본문’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바르텔레미는 이러한 과정으로 탄생한 알레포 코텍스를 히브리어 성경 비평본의 기준 필사본으로 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보며, 그 기여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²³⁾

22) Ibid., 228-230.

바르텔레미는 이어서 본문 비평의 이론적 접근을 다룬다. 본문 비평의 이론적 접근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재구성적 본문 비평(Reconstructive Textual Criticism, RTC), 다른 하나는 전승 계열 본문 분석(Genetic Textual Analysis, GTA)이다. 이 두 방법론은 각각 본문 전승 과정에서의 서로 다른 과제를 다룬다. RTC는 동일한 본문 전통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본들을 분석하여, 그 전통 안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정합적인 형태의 본문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이 접근은 ‘동일한 계열 내’에서 이형들을 비교 및 검토하면서, 전통 내부의 이상적인 본문형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GTA는 복수의 전통 계열들, 즉 사마리아 오경, LXX, 콤란 사본 등의 분화와 상호관계를 추적한다. 이 방법은 각 전통이 고유하게 전승되는 가운데 발생한 편집적 개입, 문학적 재구성, 오류 등을 분석함으로써, 더 상위의 원형(archetype) 또는 마소라 전의 상태에 있었던 본문의 특징을 추론한다.

바르텔레미는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히브리어 성경의 비평본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유형의 비평 장치를 제안한다. 이 비평 장치는 단순히 다양한 본문 증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증거가 본문 전승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설명하는 구조적 장치다. 첫째로, RTC 비평 장치는 고전 티베리아 본문 계열(classical Tiberian tradition)에 속하는 사본들 사이의 이형을 비교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본문 형태를 식별하고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고, 마소라 본문의 내부 정밀성을 판단하고 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로, GTA 비평 장치 I은 8세기경 자음 본문 표준화 이후 형성된 초기 마소라 전통, 즉 원마소라 본문(proto-Masoretic text)의 전승 양상을 다룬다. 소마소라(Masorah parva)와 대마소라(Masorah magna), 초기 강세와 모음 부호 체계 등 본문 외곽에 존재하는 주석적 요소들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기록하여, 마소라 본문이 어떻게 규범으로 정착되었는지를 추적한다. 셋째로, GTA 비평 장치 II는 자음 본문 표준화 이전의 다양한 고대 본문을 다룬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오경, 콤란 사본, LXX, 또는 독립적으로 전승된 후기 본문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마소라 전통이 형성되기 전의 본문 다양성과 그 전승 경로를 구조적으로 조명한다.

이 세 가지 비평 장치는 비평본의 중심이 되는 기준 필사본을 중심에 두고, 각기 다른 시기와 전통에서 제공된 증거들이 본문 형성에 어떻게 이바지했는지를 시간적 및 기능적으로 배열하는 역할을 한다. 바르텔레미는 이런 구성 방식이 본문 비평을 단순한 오류 정정의 수단이 아니라, 텍스트가

23) Ibid., 230-233.

시간 속에서 생성되고 정착되는 ‘문학적 및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논한다.²⁴⁾

5.2. 3부 1장 — 히브리어 본문의 다양한 형태

3부 1장은 히브리어 성경의 비평본을 준비하기 위한 서론적 작업으로,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다양한 사본 전통에 대한 정교한 분류와 분석을 통해 본문 비평의 이론적 기반을 다진다. 본 장은 단순히 사본들을 나열하거나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사본이 지닌 본문 전승의 역사적, 문헌학적 위상을 분석함으로써, 비평적 본문 판본을 편찬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본문 증거의 위계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무엇보다 바르텔레미는 중세 히브리어 사본 전통 가운데 알레포 코덱스의 권위에 주목한다. 그는 이 사본이 10세기 초 티베리아 학파의 최고 권위자인 벤 아세르의 작업을 계승한 것으로, 정확한 자음과 모음, 강세 기호는 물론 대마소라와 소마소라 모두 완비한 정통 마소라 사본으로 평가한다. 비록 1947년 시리아 알레포에서 발생한 반유대 폭동으로 인해 이 사본의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남아 있는 본문은 여전히 마소라 본문의 표준 전거로 간주되며, 현대 본문 비평과 성서 역본 번역 작업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바르텔레미는 위원회가 알레포 코덱스를 고전 티베리아 본문의 기준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타 사본들과의 정밀 비교를 통해 비평본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²⁵⁾

바르텔레미는 중세 히브리어 사본 전통이 매우 복잡하며 여러 텍스트 유형이 서로 혼합되어 있다고 평한다. 케니콧과 로시가 수집한 사본 이형을 분석한 결과, 여러 사본이 단일 계통으로 명확히 분류되기 어렵고, 필사 과정에서 발생한 수정과 변형들이 본문 전승의 다층적 양상을 반영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계통도 작성에 한계가 있음을 말한다. 중세 사본 내에서는 초필사자와 수정자가 구분되어 다수의 이형이 수정자의 손을 거쳐 교정된다. 예를 들어 케니콧의 K150 사본에서는 260개의 이형 중 218개가 수정되었고, 수정되지 않은 이형은 42개뿐이다. 이러한 다단계 필사와 교정 과정은 사본마다 본문 차이를 심화시키고 단일 텍스트 계통 구축을 어렵게 한다. 중세 사본에서 나타나는 이형은 필사자의 습관, 오류, 의도적 수정, 구전 전통과의 상호작용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다. 바르텔레미는 본문

24) Ibid., 233-236.

25) Ibid., 238-255.

비평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필사자와 수정자의 역할, 다양한 전통 혼합 상태를 반영하는 정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²⁶⁾

또한 바르텔레미는 본문 비평의 작업이 마소라 본문 자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세 마소라 체계 이전의 사본 전통, 곧 원마소라(proto-Masoretic) 및 전마소라(pre-Masoretic) 계열의 증거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사해 사본이 언급된다. 사해 사본들 가운데 일부는 마소라 본문과 높은 일치도를 보이며 이른 시기의 원마소라 전통을 반영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사마리아 오경이나 LXX와 유사한 형태를 띠어, 기원전 후기의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이미 다양한 본문 전통이 병존했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바르텔레미는 본문 전승의 단선적 흐름이 아니라 복선적, 복수적 양상을 강조하며, 이는 본문 비평의 목적이 단일하고 이상적인 ‘원본문(original text)’의 복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다층적으로 전승되어 왔는지를 해명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한다. 본문 텍스트의 유동성과 복수성은 곧 본문 비평의 핵심 과제가 텍스트의 기원 그 자체보다는, 그 기원을 향해가는 경로와 전승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한다.²⁷⁾

5.3. 3부 2장 — 다른 역본들의 기여

바르텔레미는 3부 2장에서 성서 본문 비평과 관련하여 고대 사본들과 역본들의 다양성과 그 중요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서 본문 비평 연구에서 다양한 역본과 사본 간 상호관계의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바르텔레미는 먼저 LXX를 다루는데, LXX의 구조가 단순히 히브리어 성경의 구조에 억지로 맞춰진 편집물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에서 절 경계로 삼았던 위치가 그리스어 문법상 완전한 구를 이루지 못할 때, 독자는 본문의 의미 전환이나 수사적 의미를 놓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르텔레미는 본문 편집 시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연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리스어 고유의 정지 표기(pause mark)나, 오리젠(Origen)이나 키릴(Cyril) 같은 고대 주석가들이 실제로 본문을 구획했던 단락(pericope) 경계를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²⁸⁾

26) Ibid., 256-382.

27) Ibid., 383-409.

28) Ibid., 412-467.

바르텔레미는 이어서 본문 비평 연구에 있어 여러 고대 역본과 사본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먼저 헥사플라는 히브리어 본문과 다섯 가지 그리스어 번역본을 나란히 배열해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된 중요한 편집본이다. 비록 원본은 소실되었지만, 헥사플라의 단편과 관련 주석들은 바티칸 등 주요 도서관 필사본에서 발견되어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바르텔레미는 헥사플라 사본과 주석의 해석이 매우 복잡하며, 특히 바르베리니 필사본에 나타난 다양한 이형과 오류는 신중한 비평적 접근 없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페쉬타는 히브리어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그리스어 역본 양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복합적인 텍스트이다. 바르텔레미는 페쉬타의 이러한 복합성을 인식하고, 본문 비평에 활용할 때는 그 기원을 분명히 구분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페쉬타의 일부 구절은 히브리어 본문에 근거한 반면, 다른 부분은 그리스어 역본에서 파생된 이형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분별한 증거 사용을 경계해야 한다. VUL은 고대 및 중세 본문 전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바르텔레미는 특히 15세기 마인츠에서 인쇄된 최초 불가타 ‘42행 성경(B42)’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후 파리 대학과 수도회 중심으로 다수의 교정본이 제작되었으며, VUL 본문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는데, 바르텔레미는 특히 스테파누스의 16세기 판본들이 본문 비평적 주석과 이형 목록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학문적 가치를 높였다고 평가한다. 아랍어 역본의 경우, 후기 기독교 번역으로서 주로 그리스어나 시리아어 본문에 기초하거나 사아디아(Saadya) 본문에서 유래하였다. 바르텔레미는 아랍어 역본이 히브리어 원문 비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문 비평 연구에서는 주로 그리스어 알렉산드리아 역본이나 시리아어 페쉬타의 보조 자료로 간주할 것을 권고한다. 바르텔레미는 각 역본과 사본이 서로 다른 기원과 편집 역사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분하여 본문 비평에 적용하는 것이 연구의 엄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이라고 결론 내린다. 헥사플라, 페쉬타, VUL, 아랍어 역본 모두 본문 비평에 기여하지만, 그 역할과 증거 가치가 상이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바르텔레미는 반복해서 강조한다.²⁹⁾

이어서 바르텔레미는 히브리어 성경 본문 비평에서 고대 역본과 중세 유대 해석 전통의 관계를 깊이 탐구한다. 그는 고대 역본에 나타난 본문 이형이 단순히 원문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중세 유대 해석가들이 계승한 조기 해석 전통의 영향도 크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 전통은 때로 본문 가운데 우

29) Ibid., 468-547.

연한 오류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해석자와 번역자가 문맥적 압력에 의해 독립적으로 동일한 해석을 반복 생산하는 현상 역시 확인한다. 제롬과 탈무드, 그리고 중세 유대 해석가들의 주석을 통해 바르텔레미는 고대 역본의 해석 전통이 중세까지 이어졌음을 강조한다. 또한, 역대상이나 미가 등 본문 내 자음의 자리바꿈이나 탈락과 같은 우연한 본문 오류가 중세 해석 전통 속에 반영된 사례들을 들어, 본문 이형과 해석 전통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결국 바르텔레미는 고대 역본과 중세 해석 전통, 현대 본문 비평 간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으며, 본문 비평은 단순한 원본 복원을 넘어 여러 독립 전통의 역사적·해석학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호세아와 같은 본문에서 두 개 이상의 독립적 전통이 공존함을 인지하고, 각각에 대한 별도의 비평적 복원 작업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³⁰⁾

CTAT 3부의 결론에서는 1부부터 3부에 이르기까지 다룬 본문 비평 이론과 실제 적용 내용을 집약적으로 정리한다.³¹⁾ 이어서 *CTAT* 서문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임무와 활동을 소개한다. 이 서문에서는 우선 위원회의 작업 중 주요 측면들을 강조하고, 독자가 보고서 전반에서 마주하게 될 약어 (sigla)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³²⁾

6. 나가는 말

바르텔레미의 *STOT*는 구약 본문 비평의 목적과 방법론에 대해 매우 심도 있게 조명하며, 본문 비평이 단순한 오류 수정 이상의 학문적 과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본문 비평의 궁극적 목적은 ‘원본 복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승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바르텔레미는 본문 비평이 문헌학적 및 역사적 연구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본문의 다양한 이형과 판본들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고대 공동체 내에서 기능적이고 신학적으로 수용된 ‘정경적’ 본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본문 비평은 ‘기능적 정경성(functional canonicity)’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이해하며, 이를 통해 고대 텍스트 전승의 복잡성을 입체적으로 해석한다.

30) *Ibid.*, 548-567.

31) *Ibid.*, 568-582.

32) *Ibid.*, 591-606.

둘째, 바르텔레미의 본문 비평 방법론은 RTC와 GTA를 구분하면서도, 이 둘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본다. RTC는 동일한 본문 전통 내에서 가장 원문에 가까운 형태를 추구하는 데 집중한다면, GTA는 본문의 전승 경로와 변형 과정을 분석하여 본문의 계보도를 그리는 작업이다. 이러한 이원적 접근은 단순히 오류 교정에 머무르지 않고, 본문 역사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법론적 진전이다.

셋째, 바르텔레미는 본문 비평에 대한 여러 오해를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본문 비평이 본문을 ‘불완전하고 왜곡된’ 것으로 전제하며, 이를 ‘정확한 원본’으로 바로잡는 작업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텔레미는 본문 비평이 ‘정경화된 본문 전통’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인정해야 하며, 본문 전승 자체가 단일 원본의 절대적 복원으로 귀결되지 않는 ‘역사적 과정’임을 명확히 한다. 또한, 본문 비평은 단순히 ‘필사 오류를 찾아내는’ 작업이 아니라, 본문의 신학적 의미와 문학적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연구임을 강조한다.

넷째, 본문 비평의 실제 작업에 있어서 바르텔레미는 다양한 고대 사본들과 초기 번역본, 중세 마소라 본문, 그리고 고대 유대 및 기독교 공동체의 해석 전통을 폭넓게 활용하는 ‘총체적 증거주의’를 제안한다. 이는 현대 본문 비평이 각 증거의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어떤 본문이 더 원본에 가깝다’는 단순 판단을 넘어, 본문 전승의 맥락과 의미를 함께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방법론이다.

바르텔레미의 저작은 구약 본문 비평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이후 연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공헌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탁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는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로 전개되어 본문 비평을 전공하지 않은 연구자나 성서 번역자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다. 다시 말해, 바르텔레미가 세운 학문적 토대는 엄밀성과 정밀성 면에서 높이 평가받지만, 그것을 실제 번역의 현장과 보다 넓은 독자층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다소 부족함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업은 여전히 본문 비평 연구의 초석이자 성경 번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바르텔레미의 *STOT*는 한국의 구약 본문 비평 학계에도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기능적 정경성’ 개념은 마소라 본문과 사해 사본 비교에 치중해 온 국내 연구에 사본 이형을 해석학적 자원으로 재조명할 창을 열어 준다. 둘째, RTC와 GTA를 결합한 이원적 방법론은 한국어 주

석 및 비평본 편찬 작업에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특히 GTA가 요구하는 본문 계보도는 사본·역본·주석 전통을 통합 관리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학계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총체적 증거주의’는 LXX, 마소라 본문, 한글 번역사를 포괄하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국내 연구가 국제 본문 비평 네트워크와 대등하게 대화할 학문적 기준을 확립하게끔 한다.

끝으로, 거인의 드높은 시선을 난쟁이의 눈으로 온전히 다가갈 수는 없지만, 본 서평이 본문 비평 연구자에게 작은 징검다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제어>(Keywords)

본문 비평, 서평, 장도미니크 바르텔레미.

Textual Criticism, Book Review, Jean-Dominique Barthélemy.

(투고 일자: 2025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5년 8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8월 31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정훈, “구약성경의 본문 비평”, 「구약논단」 31 (2025), 281-322.
- 김정훈, “<서평>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Neubearbeitung der Einführung in die Biblia Hebraica von Ernst Würthwein* (Alexander Achilles Fischer,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성경원문연구」 39 (2016), 448-464.
- 김창락, “성서 번역과 본문 비평”, 「성경원문연구」 11 (2002), 7-49.
- 피셔, A. A.,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 비평 에른스트 뷔르트바인 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입문서에 대한 새로운 개정』, 김정훈 외 역, 서울: 대한성서 공회, 2020.
- de Waard, J., et al. eds., *Biblia Hebraica Quinta 18: General Introduction and Megilloth = Megilo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4.
- Tov, E., “The Biblia Hebraica Quinta: An Important Step Forward”,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s* 31 (2005), 1-21.

<Abstract>

Book Review - *Studies in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Dominique Barthélemy, Winona Lake: Eisenbrauns, 2012)

Un Sung Kwak
(Keimyung University)

This paper offers a book review of *Studies in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STOT)*, a volume that collates Jean-Dominique Barthélemy's prolegomena to the first three tomes of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CTAT)*. *STOT* interweaves the discipline's historical development, theoretical foundations, and methodological trajectories, thereby providing an indispensable roadmap for scholars and translators alike.

Chapter 2 explains *STOT*'s origin in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HOTTP, 1969-), its selection of c. 5,000 test passages, and its twin methods — Reconstructive Textual Criticism (refining the Masoretic tradition) and Genetic Textual Analysis (mapping earlier textual families).

Chapter 3 reproduces the introduction to *CTAT* 1. It surveys the genesis of Old Testament textual criticism from its earliest stages up to the era of J. D. Michaelis, effectively covering the formation of modern textual criticism. The section also describes in detail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methodology employed by HOTTP.

Chapter 4 presents the introduction to *CTAT* 2. It explains the working procedures of HOTTP team: the criteria for selecting textual problems and the structure of the critical apparatus. It then clarifies why and how twentieth-century Bible translations are cited, noting that these versions served as primary resources for UBS regional translation committees when tackling difficult passages.

Chapter 5 contains the introduction to *CTAT* 3 — the most extensive and polished portion, where Barthélemy's depth and breadth as a textual critic are most evident. He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canon in functional terms and argues that this perspective should shape the objectives of textual criticism. Barthélemy also reviews the textual-critical contributions of a

wide range of ancient witnesses: the Dead Sea Scrolls, LXX, the Hexapla, VUL, the Peshitta, the Targums, and various Arabic versions. The book closes by evaluating the overall significance of *STOT* and *CTAT* and by reflecting on the ways Barthélemy's work can shape future research, critical editions, and translation projects within Korean biblical scholarship.